창간 제8호 ·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경제·금융 기초

5대 은행, 대기업 대출 20% 늘릴 때 중소기업은 3% 증가 그쳐,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5대 은행, 대기업 대출 20% 늘릴 때 중소기업은 3% 증가 그쳐…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오재현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3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하고 은행들의 대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대출 확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의 10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은행별 단순 평균 0.69%로, 9월 말 0.61%에서 한 달 새 0.08%포인트 올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0월 말 기업 대출 잔액은 900조402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5조6771억원(6.6%) 늘었다.

반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23%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조사'에서 올 4분기 중소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19로, 대기업(-8)보다 낮았다.

>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건당 규모가 커 몇 건만 늘어도 잔액이 크게 증가한다"며 "중소기업은 자금 수요가 있더라도 연체 위험이 있는 만큼 매출과 현금흐름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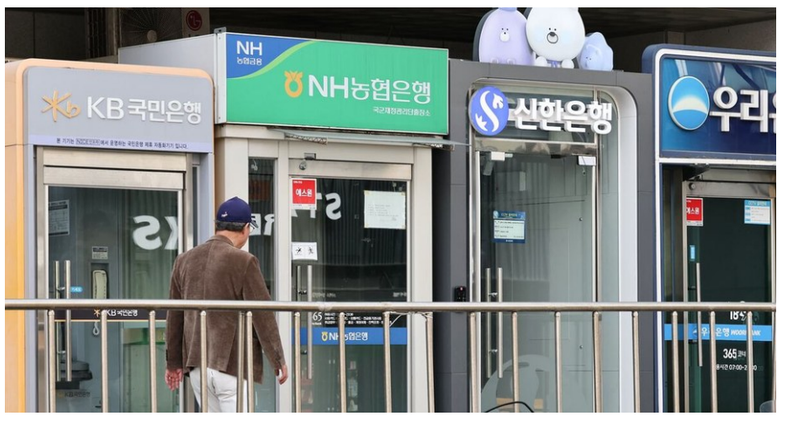
올해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20% 넘게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대기업 대출의 세 배 넘는 데도 올해 증가액은 대기업 쪽이 14조원 넘게 많았다.

전체 기업 대출 잔액

구분 · %
지난해 · 20.2
10월 · 22.8

전체 기업 대출 잔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20.2%에서 10월 말 22.8%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170조2992억원에서 205조3072억원으로 35조80억원(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20조6691억원)의 9.4%에 불과하다.



조선비즈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조선비즈

세 줄 요약

1. 올해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20% 넘게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대기업 대출의 세 배 넘는 데도 올해 증가액은 대기업 쪽이 14조원 넘게 많았다.
3. 5대 은행의 10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은행별 단순 평균 0.69%로, 9월 말 0.61%에서 한 달 새 0.08%포인트 올랐다.

용어 한눈에 보기

매출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받은 돈의 총액. 이익과는 다르다.

현금흐름 —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 이익과 다르다.

>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건당 규모가 커 몇 건만 늘어도 잔액이 크게 증가한다"며 "중소기업은 자금 수요가 있더라도 연체 위험이 있는 만큼 매출과 현금흐름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 오재현 기자

경제·금융 기초

"종근당, 주력 품목 빠지면 연 1800억 매출 공백 우려", 목표가

다만 연구개발(R&D) 비용 감소로 영업 이익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고효연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3

유안타증권은 23일 종근당에 대해 주력 도입 품목의 공동판매 계약 종료로 단기간 실적 반등이 어렵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9만7000원으로 19.2% 하향 조정했다.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를 5.6% 밑돌았고, 영업이익은 4.7% 웃돌았다. 유안타증권은 4분기부터 종근당의 주력 품목 매출 공백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품목의 올 상반기 매출은 각각 565억원, 370억원으로, 계약 종료에 따른 매출 공백은 연간 약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3분기 종근당의 위고비 매출은 25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4% 줄었다.

>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종근당은 현재 주력 도입 품목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신규 성장 품목이 부족하다"며 "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심방세동 임상 2상 결과는 2027년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의 별

종근당의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307억원, 2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15.4% 증가했다. 유안타증권은 3분기 종근당의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공동판매계약 종료와 프롤리아 약가 인하, 바이오시밀러 경쟁으로 기존 품목 매출이 줄었지만, 신규 도입 품목인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매출 감소분을 일부 메웠다고 분석했다.

경쟁약인 마운자로가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달 초부터 해외에서 구입한 마운자로의 국내 반입이 최대 3개월분까지 허용되면서 위고비 매출이 더 위축될 것으로 유안타증권은 전망했다. 종근당의 공동판매계약 종료로 주력 품목의 매출 공백이 연간 약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창업 스토리

2027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오늘 오후 4시 마감

35개 기관·860개 기업 규모, 기업당 최대 1억 원, 도약패키지 스케일업형은 3억5,000만 원

오재현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창업 3년 이내 기업과 7년 이내 도약기 기업을 지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을 운영할 신규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당초 11월 20일 마감이었으나 정부지원예산 변동에 따른 전담조직·대응자금 변경 조항을 넣고 신청 기간을 11월 23일 오후 4시까지로 늘렸습니다. 접수는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받고, 마감 이후에는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사업화자금과 실증, 판로 개척, 초기 투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과 글로벌 진출, 투자 유치를 돕습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5개 기관으로 초기 21개, 도약 14개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860개사 규모입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일반형은 최대 1억 원, 마일스톤형은 최대 1억5,000만 원, 여성·사회연대경제 특화형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도약 기본형은 최대 2억 원, 전문형은 최대 2억 원, 스케일업형은 최대 3억5,000만 원입니다. 협약 기간은 기본 2년에 평가를 거쳐 최대 2년을 더해 4년까지 이어집니다.

누가 신청하나

창업기업 지원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과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신청 자격은 기업신용등급 B 이상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학이나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협약과 사업비 관리는 신청기관 한 곳이 맡습니다.

어떻게 뽑나

평가는 두 단계입니다. 서류평가에서 유형과 권역별로 선정 규모의 두 배수 안팎을 고른 뒤, 발표평가에서 총괄책임자나 전담조직의 장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발표는 20분, 질의응답은 10분 안팎입니다. 일정은 서류평가가 11월, 발표평가와 사업운영위원회가 12월, 결과 통보가 2027년 1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비창업가에게 남는 것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지원금 자체보다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관마다 보육 방식과 투자 연계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인 1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중기부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AI 유니콘 20개사를 키우는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기관 모집이 끝난 뒤 기업 모집으로 이어지므로, 자신이 속한 권역의 주관기관이 어디로 정해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이 기사는 K-Startup의 '2027년도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2호)와 중기부 예산·정책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테크·AI 트렌드

AMD·엔비디아·인텔에 K-AI 기업까지, 글로벌 협력·공급망 대응 논의

차수림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3

인텔 역시 국내 23개 기업과 '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 를 출범시키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메모리·기판 등 핵심 부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빅테크 3곳과 국내 기업 21곳 등 총 24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피지컬 AI와 이기종 AI 인프라, 개방형 표준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공동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어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핵심 부품·소재 수급 등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MD·엔비디아·인텔 글로벌 반도체

AMD·엔비디아·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국내 AI(인공지능)반도체 생태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확대와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산 AI반도체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산 AI반도체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메모리 등 핵심 부품·소재 수급 불안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AI·데이터센터 정책 변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전략도 논의됐다.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테크·AI 트렌드

AI 붙인 의료 스타트업에 자금이 몰렸다, 내시경 로봇 338억·판독 AI 120억

11월 셋째 주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의료·헬스케어에 AI를 결합한 기업의 유치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AI 로봇 내시경 기업 메디인테크가 338억 원을, 흉부 엑스레이 판독 AI 기업 숨빗에이아이가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금융 기초

벤처투자 12조6,248억 원 역대 최대, 늘어난 돈의 절반이 제조 딥테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3분기 벤처투자는 12조6,24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4%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액의 절반은 반도체와 로봇, 첨단제조가 포함된 제조 기반 딥테크에서 나왔습니다.

테크·AI 트렌드

에이전트를 더 붙인다고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았다, 120편이 측정한 조건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120여 편 가운데 여러 편이 같은 질문을 다뤘습니다. 에이전트를 여러 개 붙이면 정말 더 좋은 답이 나오는가. 결과는 조건부였습니다. 근거는 늘고 확신은 줄었습니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경제·금융 기초

삼성전자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7% 빠졌다, 시장이 다시 계산한 것은 '기간'

코스피 5.21% 하락에 시가총액 4천조 원 붕괴, 같은 주 미국 기술주에서는 4조 달러가 사라졌다

양재형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3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던 삼성전자가 11월 20일 7.01% 내렸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5.21% 빠진 4,869.96으로 10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깎은 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이 유지될 기간이었습니다.

한 주에 4조 달러가 사라졌다

11월 20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시가총액은 3,991조 원으로 1월 15일 이후 처음 4천조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39.13포인트(5.71%) 떨어진 645.68이었고,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54분 유가증권시장과 오후 1시 28분 코스닥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서울이 문을 닫은 뒤 뉴욕에서도 같은 방향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은 5.28% 내린 2만2,617.73으로, 주간 낙폭이 10%를 넘어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S&P500은 3.70% 하락해 고점 대비 10% 넘게 밀리며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다우도 1.93% 내렸습니다.

미국 기술주에서 한 주에 약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공포지수(VIX)는 26% 오른 35.89였습니다.

누가, 왜 팔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881억 원, 기관은 1조2,422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조3,1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1월 13일부터 엿새째 매도 우위로 누적 5조965억 원을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2원 오른 1,33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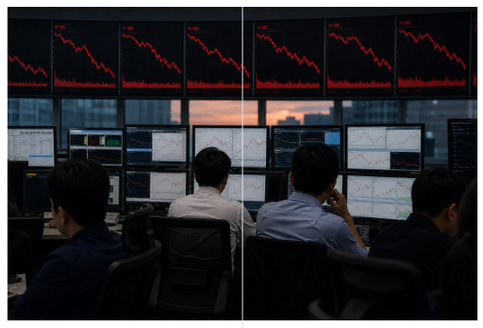
매도 재료는 네 갈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고, 미국 상무부는 새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에 일부 중국 고객사 칩 출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사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조사 보도가 겹쳤습니다.

연준 금융안정보고서는 첨단컴퓨팅 연관 채권 발행이 10월까지 6,800억 달러로 2023년 전체(1,300억 달러)의 다섯 배가 됐고, 장부 밖 약정이 3조 달러를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3.25% 인상 전망이 얹혔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갈라진 이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평균판가는 1~9월 기준 전년 평균의 약 3.7배였고,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삼성 2027년, SK하이닉스는 D램을 포함해 2029년까지 사실상 완판입니다. 그런데도 두 회사 주가는 각각 7.01%, 5.92% 내렸습니다.

시장이 다시 계산한 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유지 기간입니다. 반도체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2028년 HBM 비트 수요 전망을 약 30% 낮췄습니다. 2027년까지의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2028년의 수요 전망이 바뀌면 2029년의 증설 계획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11월 20일 코스피가 5.21% 내리며 10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한 딜링룸의 모니터에 하락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키움증권은 규제로 줄어드는 엔비디아 수요가 연 163억 달러로 전망치의 2.2%에 불과하고 대기 수요가 그 2.8~6.5배라며 실적 훼손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두 판단이 공존하는 구간이 변동성입니다.

같은 주, 사적시장은 다른 온도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에 따르면 1~3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12조6,248억 원, 벤처펀드 결성은 12조9,971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11월 16~20일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26곳이고, 금액을 공개한 8곳이 모은 666억 원 가운데 80.8%인 538억 원이 AI 로봇 내시경 기업 메디인테크(338억 원)와 유리기판 소재 기업 익스톨(200억 원)로 갔습니다. 공개시장이 할인율로 값을 매기는 동안 사적시장은 계약으로 값을 매깁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뉴욕 증시 마감 보도(11월 21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집계, 중소벤처기업부 1~3분기 벤처투자 동향, 증권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테크·AI 트렌드

"반도체 호황에도 파급 미미, 10억 원당 취업 유발 2.4명"

이는 2017년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기록한 34.5%와 2021년 4분기 코로나19 정보기술(IT) 호황 당시의 2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수민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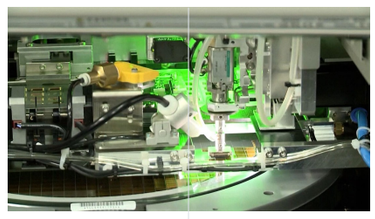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중장기 추세와 순환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기준 반도체 산업은 추세를 약 4.9% 웃돌았지만, 비반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약 0.1% 밑돌았다.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액 10억 원당 2.4명으로, 전 산업 평균(8.2명)과 선박 산업(5.9명), 자동차 산업(5.3명) 등보다 낮았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지금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기록한 34.5%와 2021년 4분기 코로나19 정보기술(IT) 호황 당시의 2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고 취업 유발효과가 낮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에서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서비스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호황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수준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파급 강도가 과거에 비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SBS뉴스

보고서는 "이번 호황으로 명목소득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만큼, 설비 및 건설 투자 파급효과와 정부 세수 확대 등을 통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금융 기초

영변에 건물 하나 더 세운 북한, 핵물질 연 35kg 추가 생산 가능성

건물 내부가 비교적 개방된 형태인 만큼 원심분리기 설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재형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 단지의 기존 우라늄 농축시설 본관에 새로운 증축 건물이 연결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증축 건물의 용도와 추가 핵물질 생산 가능성에 주목한 WSJ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샘 레어 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새 건물이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공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레어 연구원은 군사 전문 블로그 '암스컨트롤 웡크'에 올린 별도 분석에서 새 건물이 2024년 북한이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에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지은 별관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건물 내부가 비교적 개방된 형태인 만큼 원심분리기 설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SJ도 새 원심분리기가 설치될 경우 연간 3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로 증축한 가운데 새 건물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증축 공간이 실제 원심분리기 설치에 활용된다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기존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증축 공사가 지난해 9월 중순 시작돼 10월 말 외관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레어 연구원은 원심분리기 약 2000대가 설치된 강선 시설의 배치 밀도를 영변의 새 증축 공간에 적용하면 연간 약 37㎏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의 군비통제 전문 비영리단체 버틱(VERTIC)은 북한의 기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연간 최대 375㎏으로 추정하고 있다.

IAEA는 북한의 농축시설 확장과 핵물질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단신

용어사전

주가, 주식 한 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가'는 주식 한 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8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경제·금융 기초

상법 빈틈 파고든 4대 금융, '세금 0원' 배당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이 올해 2025년 결산 배당 때 처음 시행했고, KB금융, 신한금융지주도 이 추세에 합류할 것을 예고하면서 감액 배당이 주요 금융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테크

돈의 흐름과 도구의 변화

테크·AI 트렌드

한전, '한전ON'·조달망 뚫려 개인정보 152만여건 유출, 주민번호·카드번호까지 털려

한전은 22일 한전ON 이용자 65만487명과 구매·공사·용역 업무에 쓰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86만9761명 등 총 152만248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유리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과 전자조달시스템(SRM)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총 15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시스템에서 한전·기업 직원 44만2934명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전화번호 등 6개 항목도 함께 노출됐다. 회사는 지난 20일 한전ON 시스템 등에서 외부의 불법 접속 시도를 확인한 직후 불법 접근 IP를 차단하고 관련 기능을 보완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외 임직원 일동은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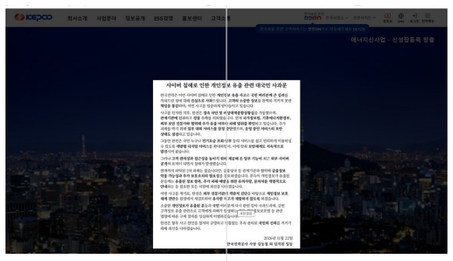
퇴직자 1만여명과 협력사 직원 68명까지 더해져 지난달 유출 인원은 총 3만5528명으로 불어났고, 한 달 만에 또다시 150만건대 고객·조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 "한전은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으나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정보 악용 가능성과 추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고객

한전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0월 직원 2만4769명의 성명·소속·사번·연락처 등 7개 항목이 해외 서버에 노출된 사실을 알리며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직원 408명의 안면인증 정보와 CCTV 1만4957대의 IP·아이디·비밀번호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가 함께 유출되면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한전ON 공지문에서는 개인별로 모든 항목이 유출된 것은 아닐 수 있다며 홈페이지 전용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을 안내했다.



보안뉴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보안뉴스

경제·금융 기초

AI 투매발 국내 증시 급락 우려에,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이에 정부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증시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예림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2

정부는 22일 오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증시 급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잇단 악재로 뉴욕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한도를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20일 14.01% 급락했는데, 10월6일 고점 대비로는 48% 폭락했다. 글로벌 증시 급락 양상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는 당분간 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1.93%), 에스앤피(S&P) 500(-3.70%), 나스닥(-5.28%) 지수 모두 급락하자, 23일 열릴 국내 증시에 충격이 전이될 것을 우려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0일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자사의 패닉지수(Panic Index)가 10점 만점에 9점까지 올랐다며 이번주 또 다른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에 더해 한국 증시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는 8.42% 내렸다. 21일 오전 마감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정규장 종가 대비 6.99% 급락한 것도 시장에 고조된 불안감을 엿보게 한다.

한국 증시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대표 잣대인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20일 직전 주보다 3.03(6.04%) 오른 53.18로 마감했다.



한겨레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한겨레

경제·금융 기초

2029년부터 정년 한 살씩 늘리나, 65세 정년연장, 정부안 발표 초읽기

그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베이비부머가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데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차태현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2

김영훈, 정부 참여 의지 시사 與정년연장특위 27일 재개 2039년까지 단계적상향 유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실무회의를 재개하며 10개월간 멈췄던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는 2039년까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절충안 성격을 지닌 이 안은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고 퇴직 후 2년 재고용을 병행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면서 퇴직 후 2년 동안 재고용하는 방식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거론되고 있답니다.

> "김 장관은 "이번 27일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년 연장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그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베이비부머가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데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만약 정년 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퇴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다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를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특위 내부에서는 2039년까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매일경제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매일경제

단신

경제·금융 기초

한전 고객 및 기업 관계자 개인정보 150만건 유출, "주민·전화·계좌번호 등 포함"

한국전력이 전기 사용 고객과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기업 관계자 등의 개인 정보 약 150만건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테크·AI 트렌드

오픈AI "AI가 연구 작업 절반 스스로 완료", 7개월 만에 성공률 2배

오픈AI의 에이전트가 인간에게 2~4시간 걸리는 AI 연구 작업을 스스로 완료하는 비율이 7개월 만에 23%에서 4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오피니언·사람

청소년 기자단의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

테크·AI 트렌드

AI 작업 능력, 6개월 만에 16시간 40시간, "판단력 여전히 한계"

평가 난도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과거 16시간과 이번 40시간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성능 향상률로 볼 수는 없다.

차수림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최첨단 AI가 인간 전문가에게 약 40시간 걸리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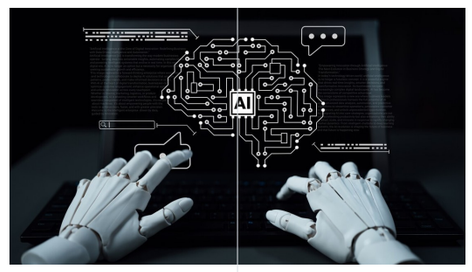
METR은 인간 전문가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AI가 해당 작업을 50%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시간 지평(Time Horizon)' 지표를 사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GPT-6 아스트라는 약 40시간, 클로드 오퍼스 5.5는 약 39시간의 시간 지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평가 난도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과거 16시간과 이번 40시간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성능 향상률로 볼 수는 없다.

이전 평가의 105일과 비슷한 수치로, AI의 작업 수행 능력이 3~4개월마다 두 배씩 높아지는 빠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16시간 이상의 작업 수행 능력을 기록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평가 수치가 40시간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AI의 장시간 작업 수행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 판단력에서도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모델의 시간 지평은 인간 전문가 기준 약 40시간까지 늘어났으며, 전체적인 작업 수행 능력은 약 3.6개월마다 두 배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AI 안전성 평가기관 METR은 20일(현지시간) 최신 모델의 연구개발 역량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5.5' 등 최첨단 모델들이 장시간에 걸친 전문 작업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별도로 모집한 전문 인력과 비교한 3개 작업에서도 AI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AI타임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AI타임스

경제·금융 기초

코스피 1월 4800선까지 하락, '1조클럽'은 11% 줄어

코스피가 급락하며 1월 중순과 비슷한 4800선으로 밀려났다.

고효연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2

코스피 지수가 4800선으로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종목이 11% 감소했다.

지수는 비슷한 수준인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10개 중 8개 가까이는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1월 중순과 비슷한 4800선으로 밀려났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6일(4840.74)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코스피 내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237개였지만, 현재는 211개로 26개(11%) 줄었다.

전체 시장 규모 또한 아래

전체 시장 규모 또한 4천 조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다수 종목이 연초 대비 주가 하락을 겪으며 전반적인 증시 체력 저하와 투자 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 종목은 1월 중순보다 26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4800선으로 돌아왔지만 시총 1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종목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3991조원으로,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40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지수가 비슷했던 지난 1월 16일 대비 주가가 하락한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723개로, 두 시점에 모두 상장된 932개 종목 중 78%에 달했다.

연초에는 코스피 5000선 돌파 기대감에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종목이 상승분을 반도체 '투톱'보다 더 빨리 반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살펴보는 학생. 빌리는 돈과 받는 돈은 갚는 방식이 다르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테크·AI 트렌드

회계사 시험 전자기기 부정행위 5년간 적발 '0건', AI 탐지 장비 예산도 없어

하지만 올해 세무사 시험 1·2차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가 지난 3월 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민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주장으로 시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감독 체계 강화 및 보안 장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인회계사 1·2차 시험에서 휴대전화나 AI 안경 등 전자기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세무사 시험 1·2차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가 지난 3월 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시험 감독 인력은 줄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 적발이 전무한 가운데, 감독 인력 감소와 AI 탐지 장비 예산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감독 인력은 1577명으로, 2023년(1870명)보다 293명(15.7%) 감소했다.

올해 1차 시험에서는 AI 기기에 대한 별도 검사 없이 감독관의 육안 확인과 전자기기 소지 금지 안내 등 기존 방식으로 시험을 관리했다. 감독관에게 AI 안경 식별 교육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안경을 일일이 검사하는 절차는 올해 2차 시험부터 도입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운영비 집행액은 2023년 21억4000만원에서 올해 22억1000만원으로 3년 새 7000만원(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시험 운영 예산에는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찾아낼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등 보안 장비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단신

경제·금융 기초

정부, 이번 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유력,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 6조원 역대 최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산 전기차의 약진에 자동차 분야의 대중 무역적자가 올해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금융 기초

대학생 45%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 중소기업 96% "청년 뽑아도 1년 내 퇴사"

대학생 45%가 취업난을 체감하며 구직 활동에도 서류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